

# 전주 한옥마을에 청년장사꾼 댔다

### 드론·VR·타로·계절음료 등 아이템 판매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급부상한 전주한옥마을이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일터로 거듭났다.

전주시는 지난 3일 한옥마을 내 비빔터에서 전주지역 청년창업가 20여명의 창업아이템을 판매하는 '청년 자유 장터의 날'을 운영했다.

이 사업은 민선 6기 전주시 청년일자리 부문 대표 공약사업인 '청년 상상놀이터' 구축에 앞서 한옥마을 등 전주의 전통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청년들의 창업과 창직을 지원하는 선도사업인 '전주다운 청년 창직창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주청년이 제작한 한복을 곁에 차려입은 청년창업가들이 드론, VR, 디제이, 타로, 계절음료, 캘리그라피, 동물 악세사리, 리본공예품 등 직접 연구개발 및 제작한 창업아이템들을 판매했다.

또한 청년창업가들은 이번 행사에서 한옥마을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독려하기 위해 각자의 아이템을 무료로 증정하기도 했다.

또, 이날 행사장 인근에서는 지역 청년예술가들의 버스킹공연도 진행돼 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시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장사꾼들이 한옥마을을 관광객과 함



신임 부서관 임관식

익산시에 위치한 육군부사관학교가 지난 2일 16-3기 부서관 임관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임관식에서는 758명의 부서관들이 계급장을 달았다.

께 어울리는 이번 청년자유장터를 통해 창업 아이템에 대한 고객 선호도 및 만족도 반응을 현장에서 파악해 청년창업가들에게 성공창업을 위한 개선방안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청년장터에는 지역 내 청년창업전문가들이 방문에 청년들의 장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창업가들의 지속적 창업성장지원을 위한 컨설팅과 피드백을 이뤄냈다.

시는 가장 전주다운 관광지인 한옥마을과 신성장동력분야 관련 콘텐츠

를 연계한 청년창업가 자유장터를 통해 지역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일 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이 지역의 미래라는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국비 1억1200만원 등 총 사업비 1억4800만원을 투입해 '전주다운 청년 창직창업 지원사업'을 추진, 시장 경쟁력을 가진 청년 창업가 10명을 육성했다.

이중 9명은 초기자본금을 지급 받았으며, 청년창업의 내실화와 사업이후

지역안착, 창업성장을 위한 간담회와 선진지 벤치마킹, dots자리장터, 전문가 컨설팅, 멘토링, 창업교육 등도 실시됐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한옥마을이라는 관광 상권밀집구역에서 진행된 이번 자유장터는 초기 자본금이 부족해 매장판매가 어려웠던 청년창업자들에게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청년 자유 장터의 날"이 앞으로 지역 청년창업의 내력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마을계획 수립 이후2동 마을총회 개최

### 복지·문화 등 5개 분과 편성... 문제점 조사·연구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개발로 행정기능이 이탈하고 주거기능이 약해지면서 침체된 전주시 원도심 지역에서 마을 발전을 위한 주민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일 이후2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마을공동체 및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계획 수립과 지역주민 화합을 통한 원도심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16 이후2동 마을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마을총회는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지역공동체 주민주도 활성화계획 수립' 사업을 통해 마을계획추진단이 도출한 이후2동 마을계획안을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마을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주시와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맺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후2동 마을계획추진단은 그간 교육과 경제, 환경, 복지, 문화 등 5개 분과를 편성하고, 마을이 가진 문제점을 조사·연구해왔다.

또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휴(休)공간사업 △성락프라자 주변상권 활성화 계획 △분리수거함 주변환경 정리 △북지지도 작성 △이후2동 달콤한 음악회 추진 등 다양한 마을 발전 계획안을 제시했다.

이날 주민들은 마을계획추진단이 발표한 마을계획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마을목표와 마을계획안을 확정했다.

이후2동 마을계획은 행정협의체

컨설팅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원도심 공동화로 침체를 겪고 있는 이후2동이 지역주민들의 손에 의해 활기 넘치는 마을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원도심 지역과 노후주거지 밀집 지역에서는 올 한해 마을 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체의 활동과 주민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후2동과 함께 마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완산동에서는 지난날 완산동마을계획추진단과 완산골교육공동체가 함께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완산동이 현재 안고 있는 지역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마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한 마을총회를 축제형식으로 열기도 했다. /김영재 기자

## 백화점 상품권 갈취 50대 여성 형사입건

전주완산경찰서는 2일 ATM기기 이용자가 잠시 애러로 인해 자리를 비운 사이 올려져 있던 백화점 상품권을 절취한 강모씨(57,여)를 형사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6월 29일 전주시 완산구소재의 한 ATM기기 앞에서 피해자가 기기오류로 인해 잠시 자리를 비운것을 보고 기기위에 올려져 있던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1매, 40만원 1매 등 총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 전주독거노인센터 김장김치나눔 봉사

전주시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센터장 서양열)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전주시에 거주하는 홀로어르신들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 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쌀쌀한 날씨 속에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생활관리사와 자원봉사자 등 75여명이 참여해 이른 아침부터 야채를 다듬고 갖은 양념을 준비해 추운 겨울 든든한 반찬이 돼줄 맛갈스런 김장김치를 함께 담갔다.

봉사 참여자들은 홀로어르신 300세대에 전달될 김치를 함께 버무리며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고,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눴다.

특히 이번 김장 나눔 봉사활동은 김장다더 회원 6명이 1년 동안 매달 모임을 실시할반 모아 배추 1000포기와 김장에 필요한 모든 야

채를 비롯해 양념까지 후원해 의미를 더했다.

서양열 전주시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장은 "김장다더 회원과 생활관리사와 함께 준비한 사랑 듬뿍 정성 가득한 김장김치가 홀로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이 전달돼 든든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홀로어르신들을 적극 발굴해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 어르신이 행복한 전주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는 전주시 관내 독거어르신의 현황조사 등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1675여명을 선정해 정기적인 안전

확인, 생활교육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김영재 기자

##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치매 어르신 겨울나기 지원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이사 정숙희)이 치매어르신과 홀로거주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고 나섰다.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은 지난 2일 전직원이 뜻을 모아 특음이 모아온 성금으로 전기장판 60개를 구입, 전주시에 거주하는 치매어르신과 홀로거주 어르신 등 60가구에 전달했다.

노인복지병원은 그간 매년 겨울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난방용으로 주로 연탄을 기부하여 왔으나, 올해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전기료가 감면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장판이 더 낫겠다는 수요자의 의견에 맞춰 전기장판을 구입해 전달하게 됐다.

이날 전기장판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76·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은

"가끔 지원해주는 연탄도 무척 고맙지만 이제 전기장판이 있어 연탄을 수시로 안 갈아도 되고, 계속 사용할 수가 있어 정말 좋다"고 감사를 표했다.

정숙희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이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난방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불우이웃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는데 다소나마 보탬이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은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평소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이용해 쌀 40포 기부, 긴급의료비 4200만원 지원, 저소득가정 30만원씩 150만원 지원, 연탄 8,000장 기부 등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김영재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노인보호전문기관 세미나 실시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은 지난 2일 전북경찰교육센터 별관에서 '전라북도 경찰 - 노인보호전문기관 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북경찰청과 각 경찰서 학대전담경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 등 업무담당자가 한데 모여 노인학대 예방 홍보와 신속한 피해자 보호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정미순 관장의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와 사건처리, 보호연계절차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석한 경찰들은 신속한 피해노인 보호를 통하여 노인학대가 없는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민근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